

회의 요약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창립기념 국제회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 과제와 전략

2011년 11월 28일

서울 그랜드힐튼 컨벤션 센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의 창립기념 국제회의가 2011년 11월 28일 서울 그랜드힐튼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는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섯 개 소지역별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지역 협력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논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각 소지역별 특수성과 현안을 파악하고, 지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발표자와 토론자를 환영하고,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이 가진 고유의 위상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에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가 무형문화유산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과 문화적 연대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센터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역내 모든 회원국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김찬 문화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매우 어려운 만큼 국제협력과 기술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는 2003년 협약 채택 이후, 보유자, 지역 공동체, 정부 간의 협력이 보다 강조되었으며 국제협력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지역 협

력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전문가들의 국가별, 지역별 상황은 저마다 다르지만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 1세션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좌장 : 조지 이반 에스피날

유네스코타슈켄트사무소 소장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 : 개관 및 전망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황에 대한 발표자로 예정되어 있던 세르게이 라자레브 유네스코알마티사무소 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함에 따라, 샤힌 무스타파예프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소장이 발표문을 대독하였다.

그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고대 문명의 교차로라는 특수한 위치 덕분에 수 세기에 걸쳐 다양한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1991년 독립 이후 현대 중앙아시아 국가들(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환경은 기존 소련체제 하에 있을 때와 현격하게 달라졌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문화 분야는 정부의 예산을 충분히 받지 못하며, 정부의 사업 계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현대적인 사회경제 분야의 성장과 역사 및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열망이 중앙아시아인들의 삶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그는 효과적인 유적의 관리,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광업 촉진을 위한 전통 예술 및 공예의 발전이라는 세 가지 과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를 포함한 유네스코 기관들은 2009년 보이순 지역 워크숍, 2010년과 2011년의 소지역 회의와 같이 구전, 음악, 수공예 전통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워크숍을 통해 이 지역과 협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다섯 개 종목을 등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요소들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내에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전문 기관과 숙련된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핵심 개념과 체계를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13년 유네스코알마티사무소와 유네스코타슈켄트사무소는 노르웨이 정부 지원 아래 중앙 아시아 지역의 국가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그는 결론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 지원의 확대가 공동 유산의 지정 및 보호 협력을 위한 소지역의 역량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내비쳤다. 끝으로 그는 카자흐스탄 의회가 최근 2003년 협약을 비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협약의 이행을 도모하고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토론자 : 아셀 우테제노바

유네스코카자흐스탄위원회 사무총장

아셀 우테제노바 유네스코카자흐스탄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앙아시아가 무형문화유산이 풍부한 특별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카자흐스탄이 아직 2003년 협약의 비준 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카자흐스탄의 역사 및 문화유산 분야에서 축적된 광대한 양의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불균형을 극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은 2004년부터 무형의 요소들을 포함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통합적 시스템을 창안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마데니 무라-문화유산'이라는 국가전략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그는 또한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카자흐스탄이 제출하여 채택된 '세계 문화 화해의 10년 선언(2013~2022)'과 같은 결의안을 언급하고, 이와 같이 협약 준수를 장려하는 국가 및 국제 차원 프로젝트가 각국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토론자 : 샤홀로 압두라히모바

유네스코타지키스탄위원회 사무총장

샤홀로 압두라히모바 유네스코타지키스탄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국제회의가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정신을 토대로 하며,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은 최근 수년 간 더욱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협력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시킨 샤희마콤을 예로 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2012년에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열릴 나브루즈 국제 기념행사를 언급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이슈들을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토론자 : 샤희 무스타파예프

유네스코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소장

샤희 무스타파예프 유네스코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소장은 중앙아시아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특히 목록작성과 관련된 과제들을 제시하였으며, 역량 강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의사소통 시스템 창안, 연구답사 수행, 무형문화유산 목록 출판과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과학적 연구와 기록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세션을 마무리하였다.

제 2세션

남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좌장 : 조지 이반 에스피날

유네스코타슈켄트사무소 소장

남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 개관 과제 및 전략- 인도, 부탄, 스리랑카, 몰디브를 중심으로

수바 초도리 미국인도학연구소 소장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과 2003년 협약이 보호 활동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2003년 협약은 보호와 관련된 논의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초도리 소장은 2003년 협약과 그 기본적 목표인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인식 제고, 재활성화를 검토함으로써 보호와 관련된 쟁점과 도전 과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목록작성의 장단점 및 등재와의 관계를 상세히 논의하는 한편, 보호 관련 발전 방안들을 특히 강조하면서 협약에서 제시하는 보호의 일부로서 고려되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호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해 다양한 단계 간 또는 유네스코 신규 계획 상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협력을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지역 내에서의 협력 활동이 앞으로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이는 향후 보호 수단을 창출하기 위한 보다 안정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토론자 :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인도 사하피디아 대표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인도 사하피디아 대표는 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은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은,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전통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로 연관되면서도 독립적인 다양한 형태의 표현물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지금까지의 활성화 프로그램은 지엽적이고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고팔라크리슈난 대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유산 보호를 위한 일관된 정책 수립, 기록을 통한 전통 계승,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무형문화유산 전문 관리인력 고용, 젊은 세대에 대한 유산교육 확대, 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팔라크리슈난 대표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자료센터와 국가무형문화유산 목록의 구축, 광범위한 기록 및 연구,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팔라크리슈난 대표는 센터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추진해야 할 몇 가지 활동을 제시했다. 문화유산을 보급하는데 있어 인도 및 아시아 문화유산 온라인 백과사전 사하피디아(Sahapedia)의 역할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토론자 : 칼리드 자바이드

파키스탄 국립민속전통유산연구소 소장

칼리드 자바이드 파키스탄 국립민속전통유산연구소 소장은 아시아의 유구한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특히, 아시아는 세계 주요 종교가 태동한 곳이며, 사랑, 평화, 관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권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는 또한 다양한 미술, 공예, 관습, 음악 및 여러 민속 전통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다른 국가들만큼 현대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민속문화의 뿌리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자바이드 소장은 9000년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역동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파키스탄의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은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문화유산 보호를 추진해왔다.

파키스탄 국립민속전통유산연구소는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인 파키스탄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자바이드 소장은 이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와 ICHCAP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으로 회원국의 문화기관 간 상호 협력, 회원국 내 유사기관 간 공동 협력,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그리고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를 제안했다.

자바이드 소장은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을 위해 힘쓴 각 회원국과 기관, 특히 ICHCAP과 ACCU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발표를 마쳤다.

토론자 : 온텐 달계

부탄 국립도서관 수석연구원

온텐 달계 부탄 국립도서관 수석연구원은 세계화를 비롯하여 현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방해요인들을 제시했다. 전통문화에 침투하는 외래 문화에 맞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아시아 각국이 처한 상황을 나열했다. 아시아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젊은 세대의 핵심 문화 가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물질주의 및 그와 관련된 가치관에 대한 인식 변화, 젊은 세대의 이농 성향, 물질주의적 개발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달계 수석연구원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닥친 난제들을 감안할 때, 회원국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수행의 확대, 가치관 재해석 및 공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대중 인식 고취, 무형문화유산 보호 기금 마련, 전문가 및 학자 교류, 무형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센터 구축 등의 조치들을 제안했다.

달계 수석연구원은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부탄 문화부와 ICHCAP이 부탄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발표를 마쳤다.

제 3세션

태평양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좌장 :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대행

태평양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 개관, 과제 및 전략

다카하시 아카츠키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 문화담당관은 태평양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지역 도서국가들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기술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수립된 태평양지역 세계유산 프로그램의 역사와 이행과정에 대

해 요약했다. 뒤이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 지역의 언어, 문화, 지리적 다양성이 취약성과 회복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2003년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협약의 준비단계에서부터 2010/2011년 태평양 7개국에서 열린 다자간 협의에 이르기까지 태평양지역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의 발전과정에 대해 약속했다. 이어서 태평양의 문화유산에 대해 논의한 뒤, 태평양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언어유산에 대해 언급했다.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에 따르면 태평양 공동체는 외세문화에 저항하면서도 동시에 포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양면적 성향은 전통과 현대적 시스템의 독특한 결합을 만들어냈다. 지난 달(10월)에는 팔라우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비준이 발표되었고, 추가로 비준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은 태평양지역의 유산 보호를 지속하기 위해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것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태평양 공동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중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은 태평양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새천년개발목표(MDGs),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전통지식과 기술(TKS)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들이 태평양 공동체 구성원, 특히 여성들의 복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밝혔다.

끝으로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은 태평양 공동체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자체 문화를 통한 역량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과 같은 모범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 : 아디 메레투이 투보우 라투나부아부아
피지 교육국가유산문화예술부 중요문화개발부장

아디 메레투이 투보우 라투나부아부아 피지 교육국가유산문화예술부 중요문화개발부장은 무형문화유산목록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산 보호 활동 및 정책수립·이행에 있어 태평양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협력 전략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유네스코 태평양 세계유산 행동강령에 제시된 과제들을 강조하면서 무형문화유산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고, 2011년 통가에서 열린 지역회의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언급했다.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의 증진을 위해 각 회원국이 협약을 비준하도록 독려한다.

- ICHCAP 활동을 통해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을 촉진한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 2차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한 유네스코 회원국에 관련 보고서를 배포한다.

라투나부아부아 국장은 언어복원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진흥할 육상 및 해상 활동을 제시했다.

- 식량확보 및 집짓기 기술을 강조하는 교과과정을 홍보, 개발, 기록한다.
- 구전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전통 항해술과 선박건조와 관련된 유적지 분포도를 제작한다.
- 태평양제도박물관협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끝으로 라투나부아부아 국장은 인간문화재 및 보유기술을 발굴하여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 : 시오시우라 로타키

통가 교육여성문화부 부수석 교육담당관

시오시우라 로타키 통가 교육여성문화부 교육담당관은 통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우려사항과 문제점을 제시했다. 현재 통가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 및 재원의 부족이라는 두 가지 난제로 인해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로타키 교육담당관은 3월에 열린 일련의 무형문화유산회의에서 통가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었다고 말했다. 이 회의 후 통가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 통가는 이토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통가는 공식적인 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무형문화유산위원회를 설립하여 무형문화유산 평가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제 4세션

동남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좌장 : 박성용

유네스코이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권한대행

동남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담당부장은 동남아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법을 개괄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동남아 11개국 중 6개국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비준했으며, 나머지 5개국은 비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커티스 부장은 이 지역 유산종목 15건이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고 밝히고, 간략하게나마 동남아시아 국가목록을 전반적으로 소개했다.

일부 국가의 법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조항을 반영하고 있다. 일례로 태국은 80건의 종목이 국가목록에 등재되었으며, 스포츠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통과 관련되어 있다. 커티스 부장은 여러 동남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소개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비준국이 아니더라도 국가 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점을 언급하고,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일부 국가들이 비정부기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협약의 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각국의 다양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 무형문화유산 국가교육체계를 수립한다.
-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이 국민 생활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관련부처의 협력을 촉진한다.
- 널리 통용되는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를 내린다.
- 공유된 문화유산을 각국이 서로 인정하도록 독려한다.

한편, 커티스 부장은 이러한 과제들이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무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태국에서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을 통해 전통놀이를 경험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했다. 아이들은 이 프로젝트에 상당히 만족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커티스 부장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워크숍 개최를 통해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커티스 부장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 활동이 의사소통 상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기술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발표를 마쳤다.

토론자 : 헤수스 페랄타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자문관

헤수스 페랄타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자문관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무형문화유산이 학교교육을 통해 전승되지도 않을뿐더러, 변화의 방향이나 방식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냐는 물음을 던졌다. 가장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주체는 바로 무형문화유산이 연행되는 그 사회 자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회조직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세부지식의 습득이 선행되어야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해 수립된 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다음의 일반적인 조치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사회적 관습을 널리 알린다.
- 전통 학교를 수립한다.
- 관습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주요 공동체 일원의 참가를 독려한다.
- 전문가 문화연구를 실시한다.
-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관습을 유지한다.

페랄타 자문관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리핀이 그 동안 활용한 노하우를 제시했다. 나아가 필리핀 내 특정 그룹을 보호하면서 부딪혔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페랄타 자문관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역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쳤다.

토론자 : 레티민 리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국 부국장

레티민 리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국 부국장은 커티스 부장이 발표한 동남아시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 현황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을 덧붙이고자 했다. 지난 20년 간 이 지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 있어 많은 난제를 경험했다. 레티민 리 부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덕분에 베트남의 정신적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세계화의 거센 영향 속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2001년 문화유산법을 제정한 베트남에서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2009년 동 법을 개정하였고, 강화된 보호조치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정보, 자원 및 인력 부족으로 효율적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레티민 리 부국장은 센터 내에 방대한 무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국에 개별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설립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센터가 각국에 정보 관련 임무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며 발표를 마쳤다.

제 5세션

동북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

좌장 : 함한희

전북대학교 교수

동북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개관, 보호 과제 및 전략

압히만유 싱 유네스코베이징사무소 소장은 동북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현황을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유네스코베이징사무소가 관할하는 5개국이 위치한 동북아시아는 구전전통, 공연예술, 관습과 의례에서부터 축제행사, 의복, 공예품 및 음식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고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공존하는 곳이다. 또한 다양한 보존·보호 기술을 개발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증진에 앞장서 왔다. 싱 소장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국가 차원에서의 인식 제고에서 성과를 거둔 유네스코 산하기관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싱 소장은 동북아시아가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기초를 마련하고 초창기 이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언급했다. 협약이 채택된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 왔다.

싱 소장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세계화라는 위협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공통 기반을 제공한다. 지난 40여 년간 동북아 5개국이 마련한 다양한 입법 및 행정 조치 사례를 통해 이 협약을 지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소개되었다. 싱 소장은 비준 후 협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는 협약에 제시된 새로운 메커니즘과 보호의 측면에서 비준이 미칠 구체적인 영향들에 대해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협약의 효율적 이행은 역량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유네스코의 지침에 따라, 한·중·일 3국은 2008년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을 위한 아태무형유산센터를 각국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싱 소장은 센터별 특징을 상세히 설명했다.

싱 소장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및 관련 정보의 발굴, 목록화, 기록하는 작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표준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력 및 기술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보유자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

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2003년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제고하고자 두 가지 메커니즘을 수립했으며, 공유된 유산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공동 등재를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싱 소장은 아태지역 전체를 담당할 카테고리 2급 기관들의 창립을 축하하며 발표를 마쳤다.

토론자 : 박원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팀장

박원모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연구정보팀장은 싱 소장의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준비한 내용을 신중히 제시했다. 정보의 중복을 막기 위해 박 팀장은 ICHCAP의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한·중·일 카테고리 2급 기관들은 동시에 설립절차를 거쳤다. 처음으로 한 지역에 유관기관 세 곳이 설립된 것이다. ICHCAP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센터의 주요 역할은 정보수집과 네트워킹이다.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ICHCAP의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그 후 ICHCAP은 그 역할과 목표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ICHCAP의 네 가지 주요목표는 다음과 같다.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
- 공동체, 단체, 개인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참여 독려
-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 및 국제협력 활성화

ICHCAP의 네 가지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다.

- 무형문화유산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보급을 목적으로 축적된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와 데이터의 활용

-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급 촉진을 위해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 간 네트워크 구축
-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및 지식 교류를 위한 국제·지역 협력 강화

토론자 : 후지이 도모야끼

아태무형유산국제연구센터(IRCI) 사무국장

후지이 도모야끼 아태무형유산국제연구센터(IRCI) 사무국장은 2011년 일본 북동부에 발생한 일련의 재난사태를 언급하며, 자연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도처에 존재한다며, 대표적으로 근대화 추세를 꼽았다. 현재 젊은 세대의 이농성향으로 말미암아 전통문화를 계승할 후손이 지역 공동체에 남아있지 않아 무형문화유산의 소멸위험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모야끼 사무국장은 지역 공동체를 통해 전승되는 수많은 전통문화가 정치, 경제적 변화에 반응하여 변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역사 기록물을 수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맥락에서 무형문화유산은 세대에 걸쳐 전승되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더불어 조사 연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정책과 교육제도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모야끼 사무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복원 및 부흥과 관련하여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쳤다.

토론자 : 양지

아태무형유산국제훈련센터(CRIHAP) 소장

양지 아태무형유산국제훈련센터(CRIHAP) 소장에 따르면, 아태지역과 동북아시아는 빈번한 문화교류와 지리적 인접성 덕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에서 있어 지역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있거나), 보호 활동 및 연구에 있어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은 줄곧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2000년 이후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수년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2010년 5월, 중국 정부는 유네스코와 '아태무형유산국제훈련센터(CRIHAP)' 설립 협정을 체결하였다. 양지 소장은 CRIHAP 이 아태지역 국가들이 역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역 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국제적 기반이라고 언급했다.

CRIHAP의 임무와 목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지역 및 국제 협력 촉진,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교류 이행,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역량강화이다.

아태지역 및 동북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지역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양지 소장은 효과적인 협력 및 교류 메커니즘 수립, 지역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기 보호 프로그램 수립,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의 지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기금 마련을 제안하였다.

폐회

특별 보고관을 맡은 아마레스와르 갈라 소장은 이날 언급된 몇 가지 주요 이슈를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무형문화유산협약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각국이 직면한 난제들을 언급했다. 그는 각국의 상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의 전문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각 공동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주민과 그 문화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한 갈라 소장은 회의에서 정보의 공유와 디지털화, 아시아 세 지역의 카테고리 2급 기관 설립, 공동체 기반 보호 활동 추진, 협력 활동의 진전이라는 언급된 주요 이슈들을 요약했다.

갈라 소장은 남아시아 지역의 인구 비중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대표목록에 등재된 남아시아 지역 유산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대표목록에 유산을 등재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 국가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며, 자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라 소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주 등장한 주제인 기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록이 중요한 작업임은 분명하나, 등재신청 과정의 일부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갈라 소장은 끝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공동체 기반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노인은 죽지만 말은 살아난다”라는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를 마쳤다.

알리셔 이크라모프 유네스코우즈베키스탄위원회 사무총장은 갈라 소장의 발표에 동감을 표시했다. 이크라모프 사무총장은 원주민 문화를 발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형유산에 비해 무형문화유산의 위상이 높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며, 유형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한희 교수는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국제회의의 폐회를 선언했다.